

# 외국인 유학생 위험관리 현황 및 대처 방안

단국대학교 국제처장  
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전국 국제처장협의회 부회장  
이재동



## 1.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위험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민족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이민족들이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장기 체류자는 총 1,395,077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사람이 677,95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사람이 132,133명, 베트남 사람이 116,219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분기별 체류 외국인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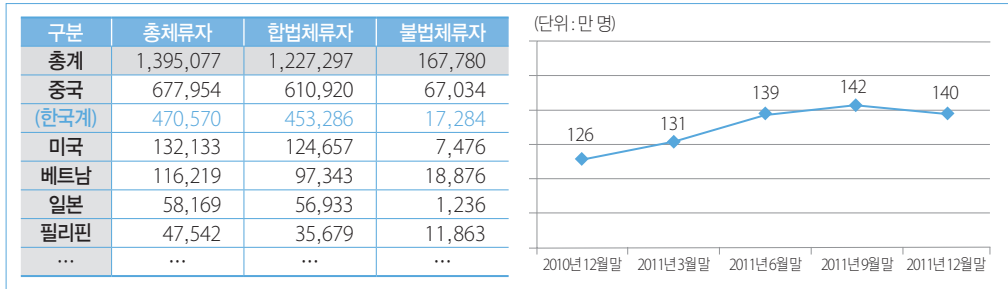


그림 1 |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과 분기별 체류 외국인 증감 현황(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sup>1)</sup>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글로벌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에 나타난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유학생 총 수는 88,468명이다. 국적별로는 역시 중국 학생이 65,27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몽골 4,598명, 베트남 3,100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그림2>와 같이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증감 추이는 전체적으로 증가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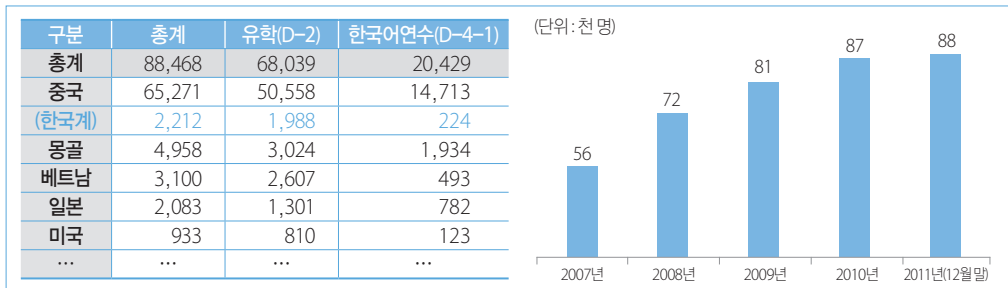


그림 2 |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증감 추이(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sup>2)</sup>

이어서 2013년 10월 기준 관광객 동향 분석을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10월 기준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1,087,9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sup>1)</sup> 통계 자료는 기관에 따라 시기와 인원이 달라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의 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sup>2)</sup> 통계 자료는 기관에 따라 시기와 인원이 달라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의 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 이슈진단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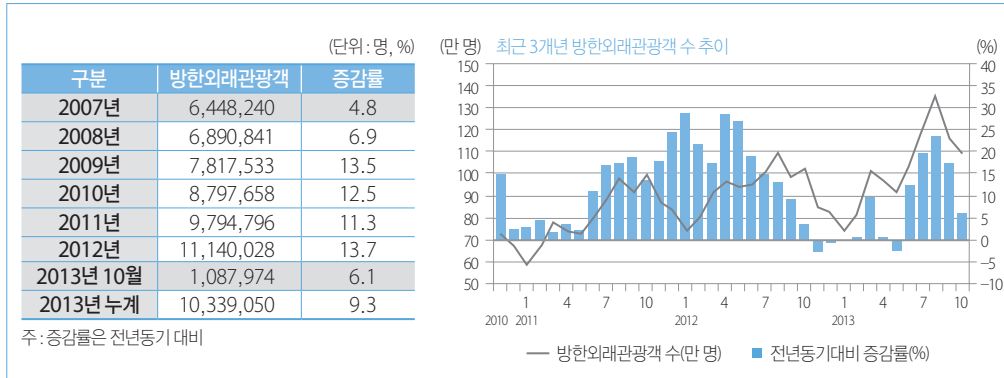


그림 3 | 방한 외래 관광객 수(문화체육관광부 자료 2013)

이렇듯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단기 포함)의 양적 증가에 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무심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위험관리 대처방안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따라서 교육 수혜자의 수도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서울 2호선 지하철 사고 등에서 보면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는 기구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번에 일어난 세월호 사고 현장은 달리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미국의 비행기 불시착 사고나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사고를 통해 보면 비행기 추락 시 90초의 골든타임 안에 승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비 절감 등의 이유로 승무원 교육을 게을리 한 선박 업계와 대구지하철 참사를 불러온 지하철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시점이다.

이렇게 수많은 위험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승무원이나 경찰들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사고 유형에 따른 대처 방법을 익혀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인들의 경우는 문화도 환경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사고를 당하면 더욱 당황할 것이다. 사고 발생 시의 대처는 자국민이나 외국인이나 서투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의 경우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안내방송조차 알아듣기 힘든 외국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도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은 시급하다.

또한, 위기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는 『119 생활영어 매뉴얼』<sup>3)</sup> 과 같은 외국인 사고 대책과 관련된 안전교육 지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전 교육이 없다면 탁상 행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

<sup>3)</sup> 단국대학교 출판부(2009) 출간

리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유학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사고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안전교육과 사고 시 대응 절차 등의 위험관리 매뉴얼 현실화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 2.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 실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안전교육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미미한 것을 볼 수 있다.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 2.1 포괄적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실태 분석

우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교육 실시 기관은 대부분 각 지역 소방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지역 외국인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는 2014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교육 대상자 중 극히 일부의 근로자들만이 수혜자인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을 보면 기초 소방시설 사용 방법, 119신고 요령, 심폐소생술 등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나 각종 재난별 예방 대책 등을 교육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현황

기관명	실시 시기	대상	내용
경남 거제소방서	2014/04	거제 거주 외국인 근로자 964명	기초소방안전교육 (기초 소방시설 사용과 119신고 요령, 심폐소생술)
충남 서천소방서 서천군 외국인지원센터	2014/05/25	서천 거주 외국인 근로자	소방안전교육(119신고요령과 소화기, 소화전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서천소방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분기 1회 이상 소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경기 김포소방서 김포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2014/04/28	외국인 근로자 50여명	소방안전교육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처 치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
울산 온산소방서	2014/03/11	외국인 근로자 30여명	소방안전교육
서울	2014/02/14	지하철 신설 현장 등 대형 공사현장 외국인 근로자 104명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장비 사용 시의 안전대책,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부산 북부소방서	2014/02/10	고용특례외국인 150여명	소방안전교육

<sup>4)</sup> 이 장의 <표1>, <표2>, <표3>에 제시한 안전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는 미디어 상에 기사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 이슈진단 및 분석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교육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교육 실시 기관은 대부분 각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주관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는 외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014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안전교육 대상자 또한 극히 일부의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수혜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화재 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대비 교육과 소화기 사용 방법 등과 같은 기초 소방 시설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등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나 각종 재난별 예방 대책 등을 교육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 다문화 가정 및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현황

기관명	실시 시기	대상	내용
강원 원주 경찰서 원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14/05/26	결혼이주여성, 사할린동포 등 체류외국인	각종 재난 대비 안전교육(교통사고, 아파트 화재발생, 건물붕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재난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 주요 재난사건 발생 시의 매뉴얼 배포)
전남 영암소방서	2014/05/26	소방공무원, 다문화가정, 유관기관 등 40여명 참석	소방안전 봉사단 발대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인천공단소방서 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14/05/20	외국인결혼이민자 30명	119안전플러스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 및 체험)
전남 강진소방서	2014/05/20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재난발생 대피 훈련 등, 시청각 교육자료 시청)
경기 시흥소방서	2014/04/09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100여명	119신고 요령,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소방시설 안전점검요령 등 강의
경기 안산소방서	2014/02/25	-	소방안전교육
경기 의정부소방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4/03/24	다문화가족	소방안전교육(소화기 사용법, 119신고방법 및 화재 시 행동요령, 생활속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2.2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태 분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에 비해 교육 횟수는 현저히 적으나, 교육 실시 기관은 각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대한적십자사, 출입국관리소, 문화체육관광국 등에서 주관하고 각 대학교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는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에 비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안전교육 대상자 또한 지극히 일부의 학교와 학생들이 수혜자인 것을 볼 수 있다.

교육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재난 예방 등이 주를 이룬 것에 비해 유학생 대상 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가담 행위 관련 범죄 예방 교육과 교통안전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어린 유학생들의 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현황

기관명	실시 시기	대상	내용
서울시 성북소방서	2007/09/12	고려대 국제관계학과 유학생	고온, 연기 체험 등 교육을 받은 후 소방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줌
안산상록경찰서 한양대 ERICA캠퍼스	2011/04/27	중국인 유학생 80명	범죄예방교실(보이스피싱 등 범죄가담 행위 금지 등 기초질서, 교통법규 등)
경남 국립경상대학교	2012/03/04	신입생 92명 (중국어권 51명, 비중국어권 41명)	외국인 신입생 OT에 안전 관리 교육이 포함됨
	2012/09/03	신입생 93명 (중국어권 49명, 비중국어권 44명)	
제주시 서부경찰서 제주관광대학	2012/09/13	경찰, 학교관계자, 유학생 등 150여명 참석	외국인 유학생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찾아가는 치안설명회(교통안전, 범죄 안전교육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제공)
부산시 소방본부	2012/11	부산 지역 다문화 가정 및 유학생 80명	119시민안전체험 투어 (각종 소방차량, 인명구조선 시범 관람. 소화기 사용 및 연기, 지진 행사. 인명구조 시범 관람. 119 신고 요령을 배우고 소방 홍보 동영상 시청. '재난안전체험관' 견학)
서울시 동작소방서	2013/03/29	유학생	소방체험교육
경남 창원대 대한적십자사	2013/05/23	한국어학당 유학생 30여명	2013 건강증진대학 심폐소생술 체험교실 실시(교직원, 재학생, 유학생)
충남 아산경찰서	2014/02/28	순천향대 새내기 80명	도로교통법, 범죄 예방 교육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시 계명대	2014/06/02	계명대 유학생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통안전교육이 포함됨. 계명대를 비롯 한 전국 7개 대학(경희대, 동국대, 국민 대, 부경대, 인하대, 호남대)을 시범위탁 대학으로 지정함.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	2014/06/07	대구 관광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40명 (한국인 26명, 유학생 9개국 14명)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생활 속 안전교육을 받음.

### 3. 외국인 유학생 대상 위험관리 대응 방안

2장에서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안전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관할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부정기적이고 미미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노동부나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등의 기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이 사립대학 재학생들로 학교 측의 재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형식적인 강의식 안전교육으로 시행되거나 자료로 배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수도권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3.1 외국인 유학생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D대학의 국제학생<sup>9)</sup> 위험관리 시스템은 첫째, 예방 교육 및 대피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고 둘째,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사전에 예방하며 셋째,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D대학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다음 <그림4>와 같이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D대학은 위험관리를 예방과 대응의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데, 먼저 예방의 차원에서는 학교 당국자와 학생들의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실제 훈련을 실시하며, 기숙사와 강의실 등의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처의 안전관리 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두었다.

안전사고 대비와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담당자별 사고대응 역할 및 유의사항을 지정하여 숙지시키고 안전사고 유형별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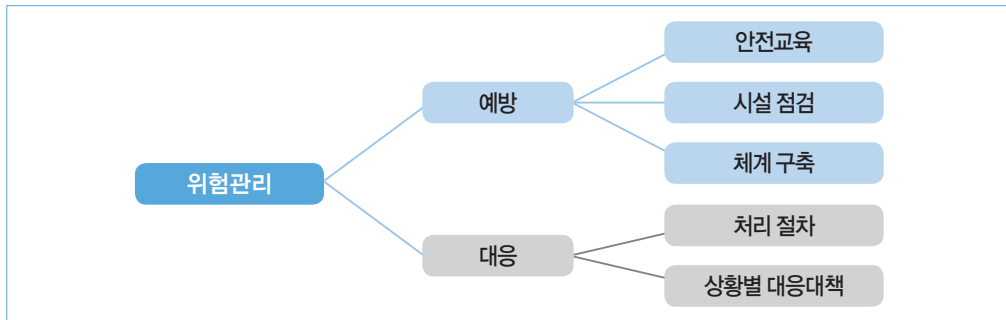


그림 4 | D대학의 위험관리 시스템

<sup>9)</sup> D 대학에서 칭하는 국제학생의 범위는 D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 장기·단기 어학연수생을 가리킨다.

### 3.2 외국인 유학생 안전교육

지금까지 실시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대부분이 강의를 듣거나 견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치안 설명회 개최 등과 같이 대학과 소방 당국이 협력하여 실생활에서 당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모의 체험 형식의 실전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의 향상과 생활 속의 응급 처치 능력,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료 조사 시 파악된 바로는 안전교육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한국어로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어휘들이 사용되는 범죄 및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언어권별로 구분하여 번역된 자료와 통역이 동반된 교육이 필요하다.

D대학의 경우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신·편입생, 교환학생, 어학연수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언어권별로 제작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찰서와 지역 소방서의 담당자를 초빙하여 범죄 예방교육과 재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 등의 실제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센터를 기반으로 한 유학생 상담센터 조직 운영을 통해 유학생들의 위험관리를 구조적 정서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 3.3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사고 대응과 대책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와 함께 위험에 처할 확률 또한 커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D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대응과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 4 | D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처리 절차 (예)

단위 업무	처리 시기	주요 내용	담당자
사고 발생	-	• 안전사고 발생 정보입수	
병원으로 이송	30분 이내	• 위급한 상태에 있는 학생 인지 후 즉시 119 구조대에 요청하여 병원으로 이송 • 사고자 혹은 목격자가 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	최초 발견·신고 접수자
보호자 및 소속대학 관계자에 사고발생 알림	2시간 이내	• 보호자 및 (교환학생의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사고발생 알림 • 국제처 보고체계를 거쳐 사고발생 알림 • 업무지원 협조팀 임시구성 • 사고발생 후 담당직원은 사고경위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기록	• 유학생: 유학생담당자 • 교환학생: 언어권별담당자 • 어학연수생: 어학원생담당자
사고경위 보고서 작성	사고 발생 3시간 이내	• 사고발생 후 사고학생, 사고경위 및 처리상황에 대한 실시간 보고서 작성 • 처장, 주한대사관 등에 공문을 보낼 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사고 발생 알림 • 사고처리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서 작성(병원, 경찰서, 소방서, 보험회사 등)	



## 이슈진단 및 분석

단위 업무	처리 시기	주요 내용	담당자
주한대사관에 사고발생 알림	사고발생 12시간 이내	• 사고학생 인적사항 및 사고경위와 처리상황을 공문으로 알림 • 사고발생 소식을 접수한 후 대사관 직원과 통역관이 사고관련 기관 방문	
재외 한국 영사관에 사고발생 알림	사고발생 12시간 이내	• 사고학생 보호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국외 한국 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비자발급 협조 요청(보호자 여권사본 등 필요서류 발급, 사고경위 공문 발송하여 신속한 비자처리 협조 요청)	
서한발송	사고발생 12시간 이내	• 파견학교 총장과 국제교류본부장에게 사고발생 서한으로 통지(우선, E-mail, 팩스 등을 통해 사고발생을 알린 후, 서한을 작성하여 총장님 명의로 서한 발송)	
중간보고서 작성	사고발생 12시간 이내	• 사고발생 후, 사고경위 및 처리상황을 일자별·시간별로 중간보고서 작성 • 학교의 사고대처에 대해 자세하고 철저히 기록하여 증빙서류 요구 시 제출 • 사고처리 관련 공문, 서류 발급, 재정 지원 등의 서류 모두 취합	
보호자 및 소속학교 담당자 입국수속 등 협조	사고발생 48시간 이내	• 보호자 비자발급, 공항출영, 숙소예약, 필요물품 구입 등 협조(사고학생 이 입원한 병원 인근 숙소예약, 통역 담당직원 배치하여 통역지원 등)	
사고지원팀 구성	사고발생 48시간 이내	• 초기 대처 안정화된 후 사고지원팀을 구성 • 법률자문, 증빙자료 취합, 보고서 작성, 재정지원, 생활지원, 통역지원으로 나누어 담당자를 배치	

표 5 | D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대응 담당자 역할 및 유의사항 (예)

구분	역할 및 유의사항	
담당자	사고접수	• 긴급처리(119호출/병원이송/응급처리지원자원 확인)
	지원요청	• 팀장/어학원 교육부장/GTN 등 지원요청
	경위보고	• 우선 보고 후 Fact를 담아 객관적으로 작성 (순서: 처관계자보고 → 대응협의 → 보호자연락 → 관계기간연락 등 위 처리절차에 의함)
	보호자 연락	• 대응협의 내용범위에서 사고상황, 처리과정 설명: 최대한 공감적 경청 • 보상 및 과실책임 부분에 대해 주관적 판단에 의한 답변은 조심
	요구사항 정리	• 사고자의 보호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실시간 보고
	중간보고서 등	• 관련 보고서를 정리 중간 수시 보고

표 6 | D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 절차의 사례

<b>&lt;교통사고&gt;</b>	
1) 업무처리 프로세스	
교통사고 정보 입수	→ 내부보고(과정별 진행사항 보고) → 병원 방문 →
경찰서 사고확인	→ 가해자/피해자 확인 → 자동차보험 유무 확인 →
치료 및 보상 협의	→ 민사 또는 형사합의
2) 고려 사항	
1)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담당 경찰서	4) 필요 시 통역 지원
2) 가해 또는 피해 여부 확인	5) 형사 합의(경찰서) 또는 민사 합의(보험사) 진행 지원
3)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전달 안내	

#### 4. 외국인 유학생 위험관리를 통한 기대 효과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실시된 외국인 안전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위험관리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한국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들, 특히 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대학이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참교육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대학들이 주도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험관리 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그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칫 한국 사회의 구조 시스템을 몰라서 확대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 자신이 소속 대학 나아가 한국 정부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면 우수한 유학생 유치는 물론이고 다양한 국가의 대학들과 국제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을 교육시켜 자원 봉사대를 결성하기도 한, 전남 강진의 경우처럼 일정 교육을 받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차기 안전교육 실시 시 유학생들의 통역 지원 등 소방 당국에 인턴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대학에서 수학한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단지 교육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연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인턴십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한국계 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인연이 계속되어 소속 대학을 비롯하여 나아가 한국의 잠재적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자 내편에 나오는 불균수지약(不龜手之藥)을 손에 넣은 사람들이 그 약의 강점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루하루를 단지 배불리 먹고 사는 데에 만족할 수도 있고 나라를 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유학생들도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단지 좋은 기억으로만 간직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월나라를 구한 선비처럼 하나의 강점으로 이용하여 더 큰 세상을 이룰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 필자소개

**이재동** |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미국 켄트주립대(Kent State University)에서 컴퓨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IT Korea 정책포럼 인재양성 위원장, 민간학대 콘텐츠 정책 협의회 위원, 농협중앙회 전산고문, 한국 CT 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정보통신원장겸 CIO, 전국대학 정보화 협의회 이사, ㈜두루넷 기술기획 팀 과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대학 국제교육협의회 부회장, 단국대학교 국제처장 및 모바일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특허 및 논문으로는 『모바일과학개론』(공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인터넷 기술과 응용』(공저) 등이 11편 저서, 『Stress 완화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방법』, 외 15건의 특허 및 『Movie Browing System based on Character and Emotion』 외 100여편의 논문이 있다.